

##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및 상호작용\*

Children's Emotion Recognition, Emotion Exp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s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s\*

최은실(Eunsil Choi)<sup>1)</sup>

Kelly Bost<sup>2)</sup>

### ABSTRACT

The goal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how children's recognition of various emotions, emotion exp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s among their peer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attachment styles. A total of 65 three to five years old children completed both attachment story-stem doll plays and a standard emotion recognition task. Trained observers documented children's valence of emotion exp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s among their peers in the classroom. Consistent with attachment theory, children who were categorized as secure in the doll play were more likely to express positive emotions than children who were categorized as avoidant in the doll play. Children who were categorized as avoidant in the doll play were more likely to express neutral emotions among their peers than children who were categorized as secure and anxious in the doll pla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general attachment literature by documenting how attachment security plays a crucial role in having positive emotions in ordinary situations. It does so by also demonstrating how different attachment styles are associated with children's qualitatively different patterns of emotion processing, especially in terms of their expression of emotions.

**Key Words** : Children, Emotion Recognition, Emotion Expression, Attachment, Attachment Styles.

---

\* 본 논문의 가설은 주저자의 박사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증함.

<sup>1)</sup>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연구원

<sup>2)</sup> Associate Professor, Human and Community Developmen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U. S. A

**Corresponding Author** : Eunsil Choi,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echoi0508@gmail.com

## I. 서 론

애착이론은 정서 인식(emotion recognition), 정서 이해(emotion understanding), 정서 표현(emotion expression), 정서 조절(emotion regulation) 등 인간의 다양한 정서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s, 1978; Bowlby, 1969, 1973, 1980, 1982; Shaver & Mikulincer, 2005; Sroufe, 1996; Thompson, 1998). Bowlby는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형성된 관계의 질이 그 사람의 정서 패턴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owlby, 1973; Cassidy, 2008; Main, Kaplan, & Cassidy, 1985; Thompson, 2000). 주 양육자가 아이가 원할 때 그 아이의 욕구를 잘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면, 아이는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표현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Main et al., 1995). 반면, 주 양육자가 아이가 원할 때 그 욕구를 무시한다거나, 일관성이 없이 들어줬다 안 들어주었다 한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패턴을 가지게 되거나(회피형 애착), 과잉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저항/양가적 애착)하는 정서 패턴을 갖게 될 것이다(Cassidy, 1994, 2008). 또한, 이러한 아동의 애착과 정서 발달은 아동의 상호작용,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 및 또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Denham et al., 2003; Denham, MacKinley, Couchoud, & Holt, 1990; Laible & Thompson, 1998; Sroufe, 1996), 아동의 내재적(internalizing), 외재적(externalizing)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Eisenberg et al., 2000; 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이처럼 애착 이론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의 질이 한 사람의 정서를 조직하고 발달시키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Bowlby, 1969, 1973, 1980, 1982).

특히, 애착 연구자들은 애착 유형을 나누어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정서 패턴을 설명하고 있다. 제일 먼저 애착 유형을 나누고 연구한 Ainsworth와 그녀의 동료들이다(Ainsworth et al., 1978). 이들은 영아의 애착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낯선 상황 실험(Strange Situation)을 고안했다. 낯선 상황 실험은 영아가 엄마와 분리되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의 영아의 정서 패턴과 엄마를 탐색의 안전 기지로 삼는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애착 유형을 구분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 절차를 통해, 애착 연구자들은 안정 애착 영아들과 불안정 애착 영아들의 정서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수십 년 간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내었다. 안정 애착의 영아들은(secure infants) 엄마가 실험실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왔을 때, 엄마를 반기고 쉽게 안정을 찾으며 곧 놀이에 몰두한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영아들은(avoidant infants) 엄마가 실험실에서 나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엄마를 못 본체 하거나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회피형 애착의 영아들은(avoidant infants) 엄마가 돌아온 후에도 활발하게 놀지도 못하고 엄마가 나간 후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반면, 저항/양가적 애착의 영아들은(anxious/ambivalent infants) 엄마가 돌아왔을 때 많이 울거나 쉽게 울음이 그쳐지지 않으며 놀이도 활발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비조직화된(혼돈) 애착의 영아들은(disorganized infants) 엄마가 돌아왔을 때 소리를 지른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얼어붙는 등 기이한 정서를 보인다(Ainsworth et al., 1978; Main & Hesse, 1990). Cassidy(1994)는 세 가지 애착 유형과 정서 패턴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안정 애착 아동들은 정서 표현이 자유롭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응적

인 정서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다던지(회피형 애착) 정서를 과하게 표현 한다(저항/양가적 애착). Cassidy와 Kobak(1988)은 통제 이론(control theory)을 도입해서 애착유형과 정서 패턴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주 양육자가 아동의 욕구를 무시하면, 아동은 애착 대상에 대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애착 시스템 자체를 작동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deactivating strategy, see Kobak, Cole, Ferenz-Gillies, Fleming, & Gamble, 1993; Shaver & Mikulincer, 2010). 따라서 이 회피형 애착 유형 아동들은 친밀한 관계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 결과,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정서적인 자극에 민감하지 못하며 자신의 정서의 표출에 서투르다. 반면,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를 일관성이 없이 들어주면, 아동은 애착 대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감정을 과잉으로 표현하고 애착 기제를 과하게 작동시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hyperactivating strategy, see Kobak et al., 1993; Shaver & Mikulincer, 2010). 이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애착 대상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정서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과장시켜 결국 정서적인 경험들에 과민한 정서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이론에 근거해서, 많은 애착 연구자들이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 조절 방법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경험적 연구를 많이 해 오고 있다(Cassidy, 1994, 2008; Kobak et al., 1993;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Shaver & Mikulincer, 2010). 또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애착과 정서 인식, 정서 표현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애착의 유형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애

착 안정성(security)을 연속적인 변인으로 보고, 안정 애착의 아동들과 불안정 애착 아동들의 정서적 기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Labile과 Thompson(1998)은 안정 애착의 아동들이 불안정 애착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잘 알아차린다고 밝혔고, Sroufe, Schrock, Motti, Laworski, & LaFraniere(1984)는 안정 애착인 아동들이 친구들과 놀 때 불안정 애착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애착의 유형에 따른 정서의 차이보다는 안정과 불안정 애착에 따른 정서의 차별화된 기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애착 이론에서 서로 다른 불안정 애착 유형인 회피형 애착 아동과 저항/양가적 애착 아동들 사이에도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애착 유형을 안정, 회피, 및 저항/양가적 애착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2가지 불안정 애착 유형과 안정 애착 유형이 유아의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신경과학자들은(neuroscientists) 정서 인식과 정서 표현은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있다(Davidson, Jackson, & Kalin, 2000; Heller, 2004). 구체적으로, 정서 인식이라는 것은 정서에 대해 ‘아는 것(knowing)’, 감정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해독의 과정을 의미하고, 이 과정은 우반구 뒤쪽의 뇌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반면, 정서 표현은 정서를 ‘생산(production)’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두엽의 비대칭과 연결되어 있다(Heller et al., 1997; Heller, 2004). 이처럼, 정서를 인식하는 것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뇌의 다른 부분의 활성화와 연결되어 있는 전혀 다른 기제라는 것을 고려할 때

(Davidson et al, 2000; Heller, 2004), 본 연구는 두 가지 다른 정서적 기제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연구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정서적인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아동의 상호작용까지 질(Denham et al., 2003)까지 살펴봄으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적인 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아동의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능력이 애착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정서 인식은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애착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에 기반 해 볼 때, 먼저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안정 애착이나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보다 여러 가지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정서 표현 또한 애착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과 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들에 비해 또래와 함께 있을 때 정서적 표현이 적을 것이다. 셋째, 아동이 상호작용의 질 또한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과 안정 애착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일이 빈번하지 않을 것이다. 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들과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경험적 연구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총 65명의 만 세 살에서 다섯 살 아동들(남아

28명, 여아 3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미국 중부 지방의 대학교에 소속된 어린이집, 총 여섯 반에서 섭외 되었다. 평균 아동의 나이는 49.71개월이었으며, 참여 어린이 어머니의 나이 평균은 약 만 37세였고, 아버지는 약 만 40세였다. 아버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대학교육 이상을 받았으며, 53.8%의 어머니와 51%의 아버지가 박사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57.7%의 어머니와 60.8%의 아버지가 백인이었고, 28.8%의 어머니와 23.5%의 아버지가 아시안 인이었으며, 5.7%의 어머니와 5.9%의 아버지가 스페인인이었다. 단 3.9%의 아버지만이 흑인이었다. 소득 수준을 보면, 전체 가정의 82.7% 가 연봉이 55,000달러가 넘었다. 연구대상 아동들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님들이 대부분 대학교육 이상의 고학력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중상류층 가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Gilbert, 1998).

#### 2. 측정도구

##### 1) 아동의 애착 표상 및 유형(Attachment Representations/Styles)

아동의 애착 표상은 MacArthur 이야기 완성 검사(MSSB; Bretherton et al., 1990; Page & Bretherton, 2003) 의 두 가지 이야기를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MacArthur의 이야기 완성 검사의 여러 이야기 중 아동의 애착 기제를 가장 잘 활성화 시킨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이야기, 엄마가 건드리지 말라고 한 뜨거운 스프를 건드려서 쏟는 이야기와 집안에 어른들이 아무도 없을 때 무릎을 다치는 이야기가 사용되었다(spilled soup, hurt knee). 아동이 이야기에 잘 몰입할 수 있도록 이야기에 나타나는 가족 인형들과 인형집, 여러 가지 소품 등을 활용하였다.

이야기 완성 검사를 시행하기 전, 검사자는 아동에게 미리 검사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이 검사는 이야기를 검사자와 아동이 함께 만드는 것이고, 방식은 검사자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동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또한, 위밍업 이야기를 통해 아이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는지 숙지하도록 하였다. 위밍업 이야기는 아이의 애착 기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이야기로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생일 축하 이야기). 검사자는 검사 동안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총 검사 시간을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부모 동의하에 비디오 녹화하였다. 검사 내용은 분석을 위해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 완성 애착 검사는 Bretherton과 MacArthur Narrative Workgroup이 개발한 평가 방식(Oppenheim et al., 1997) 중 총 5가지 영역(회피, 불안, 일관성, 이야기 완성도,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과 이에 따른 애착 유형만을 사용하였다. 안정성 총 점수와 애착 유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안정성 영역은 다른 4개의 영역(회피, 불안, 일관성, 이야기 완성도)을 모두 통합하는 영역(Oppenheim, 1997; Oppenheim et al., 1997)이기 때문이었고, Oppenheim et al. (1997)이 나눈 애착의 세 유형이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과 낯선 상황 실험(Strange Situation)에서 안정 애착, 회피형 애착과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생각되어 사용하였다.

애착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안정성 평가(security)에서 아동의 이야기가 아주 안정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 아이는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다(4.5 점 이상). 안정성 평가(security)에서 4.5 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아동들은 두 가지 유형 애착(회피

형 애착, 혹은 저항/양가적 애착)으로 나누었다. 아동의 이야기나 아동 자체가 이야기 즐거리나 검사로부터 철회되어 있는 경우, 또는 빈번히 ‘잘 모르겠다’고 말할 경우, 아동은 회피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아동이 이야기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꼬여 있거나 반전이 있거나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잘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저항/양가적 애착으로 분류되었다. 애착 유형 역시 두 평정자가 따로 평정하였으며 두 평정자간의 차이는 신뢰도를 체크하는 동안 완전히 합의를 이루었다. 만약 두 이야기에서 아동의 애착 유형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에는 평정자들이 함께 다시 이야기 내용 전체를 검토한 후 전체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애착 유형을 결정하였다. 분석할 때는 최종적으로 합의된 애착 유형을 사용하였다.

## 2) 정서 인식(Emotion Recognition)

아동이 얼마나 여러 가지 정서들을 잘 알아차리는지는 Denham의 표준 정서 인식 방법(standard emotion recognition task)을 사용해서 측정하였다(Denham et al., 2003). 검사자는 각기 다른 7가지 표정(행복한, 슬픈, 화난, 역겨운, 놀란, 중성적인, 두려운)을 한 꼬래 어린이의 사진을 아동에게 보여주며 이 사진 속의 아이가 어떤 기분인지를 아동에게 물었다. 또한, 왜 사진 속의 아이가 기분이 그러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답의 총합을 정서 인식의 점수로 사용하였다. 정서 인식의 평균은 3.45( $SD = 1.37$ )이었다. 아동들은 최저 1점부터 최고 6점까지 받았다.

## 3) 정서 표현(Emotion Expression)

아동의 정서 표현은 본 연구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개발한 관찰 방식에 의해 측정되었다. 두

명의 훈련받은 관찰자들은 아동의 정서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중립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각 학급 명단이 적힌 기록지를 들고 6초 단위로 아이들을 관찰하며 정서의 질을 기록하였다. 아동이 웃고 있거나, 신나게 놀고 있거나, 행복해 보이면 긍정으로, 감정적인 표현 없거나, 중립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립으로, 화가 나 있거나, 우울해 보이거나, 슬퍼하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보인 경우 부정으로 표시하였다. 관찰자들은 기록지의 첫 아동부터 시작해서 관찰하면서 몇 명의 아이가 그 회기에 교실에서 있었는지도 기록하였다. 이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간다거나, 결석을 하는 등 관찰자들이 그 회기를 관찰할 때 아동이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상 아동이 속해있는 각 학급마다 100회기를 기록하였으며, 한 회기는 학급 명단이 적힌 기록지 한 회를 첫 아동부터 마지막 아동까지 기록함을 의미한다. 관찰은 한 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한 아동별 관찰시간은 한 학기 동안 평균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정서 표현의 총 점수는 긍정적 정서, 중립적 정서, 부정적 정서 표현의 총합을 각 아동별로 교실에 있었던 총 횟수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관찰자간 일치도는 .78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 4)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s)

아동의 상호 작용 또한 본 연구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개발한 관찰 방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상호 작용을 관찰한 두 명의 관찰자들은 정서 표현을 관찰한 관찰자들과 다른 관찰자들로 구성되었다. 정서 표현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학급 명단이 적힌 기록지를 가지고 명단의 첫 아동부터 마지막 아동까지 대상 아동 한 명씩 15초 동안 관찰 한 후, 상호 작용의 질(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을 평가한 후 기록하였다. 아

동이 신나게 놀거나, 친근하게 사람들과 얘기를 하거나, 누구를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자리나 물건을 차지하려고 싸운다거나, 의도적으로 놀리거나, 차거나 때리는 행동,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부정적으로, 친사회적인 행동인지 비사회적인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중립적으로 표시하였다. 상호작용 또한 대상 아동이 포함된 각 학급마다 100회기를 자유 놀이 시간에 관찰하였다. 상호작용의 총점은 각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상호작용의 총합을 각 아동별로 교실에 있었던 합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는 대상 아동이 관찰 당시 여러 가지 이유(화장실이 가거나, 결석하거나 등)로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자간 일치도는 .72으로, 역시 만족스러운 관찰자간 신뢰도였다. 상호작용은 정서 표현과 같은 학기에 관찰되었으며, 한 아동별 관찰 시간은 평균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한 번의 아동 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애착 유형과 정서 인식을 측정하였으며, 두 팀의 관찰자들이 한 학기에 걸쳐 정서 표현과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였다. 정서 표현을 측정하는 팀이 먼저 관찰하였으며,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는 팀이 정서 표현의 측정이 끝난 후에 관찰하였다. 모든 연구 절차는 같은 학기에 이루어졌다. 먼저, 아동의 애착 유형과 정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들을 따로 한 명씩 검사실에서 인터뷰 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인터뷰 전에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교실마다 각각 6시간 이상 아동들과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동의 정서 표현과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관찰자들은 먼저 아이들의 이름을 익히기 위해 각 교실에 들어가서 이름 익히는 작업을 3~4시간 이상 하였다. 이름을 충분히 익힌 후 관찰은 자유 놀이 시간에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정서 표현을 관찰하기 위해 두 명의 훈련된 관찰자들은 학급 명단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가 명단에 적힌 차례대로 6초 단위로 아동의 정서를 관찰하며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정서를 표시하였다. 또 다른 팀의 두 명의 연구자들은 똑같은 학급의 명단을 가지고 차례대로 관찰하되 이번에는 15초 단위로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을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표시하였다.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관찰자간 신뢰도는 급내상관계수 ICC(interclass correlation)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일반 특성과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통계, 피어슨 적률 상관분석,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정서 인식, 정서 표현, 또래 상호작용이 다른 일반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애착 유형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시행하였다.

### III 결 과

#### 1. 기술적 통계 및 사전 분석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 분석을 통해 아동의 연령과 성이 정서적 변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상관관계로 분석한 결과,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다양한 정서를 잘 알아차렸고( $r = .60, p < .01$ ),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했으며( $r = .49, p < .01$ ), 친구와 중립적인 상호 작용을 많이 하였다( $r = .44, p < .01$ ). 또한,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중성적인 정서를 적게 표현했다( $r = -.44, p < .01$ ). T 테스트 결과,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으며( $M = .08, SD = .06, M = .04, SD = .03$ ), 부정적인 상호작용( $M = .07, SD = .07, M = .03, SD = .05$ )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t = 3.44, p < .01, t = 2.23, p < .05$ ). 또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적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M = .67, SD = .19, M = .78, SD = .16, t = -2.60, p < .05$ ). 위의 사전분석을 기반으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emotion recognition, emotion expression, and social interaction and gender differences

	Total		Boys (n=28)	Girls (n=37)	t
	M(SD)	Range	M(SD)	M(SD)	
Emotion recognition	3.45(1.37)	1.00-6.00	3.25(1.40)	3.60(1.35)	-1.03
Positive affect expression	.73( .18)	.30-1.00	.67( .19)	.78( .16)	-2.60*
Neutral affect expression	.22( .16)	.02- .62	.25( .18)	.19( .15)	1.58
Negative affect expression	.05( .05)	.00- .27	.08( .06)	.04( .03)	3.44**
Positive social interactions	.41( .24)	.00-1.00	.42( .22)	.40( .25)	.26
Neutral social interactions	.11( .13)	.00- .81	.09( .09)	.13( .15)	-1.40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05( .06)	.00- .28	.07( .07)	.03( .05)	2.23*

Note : N = 65,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로 해서, 본 분석에서 아동의 연령이나 성이 연구 변인들과 관련될 때는 이를 통제하였다. 성차에 관한 연구변인들의 차이 또한 Table 1에 제시하였다.

## 2.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의 차이

이야기 완성 검사에서 안정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전체 아동의 46%(30명)이었고, 회피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25%(16명)이었으며, 저항/양가적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29%(19명)였다.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정서 인식, 정서 표현, 또래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시행하였다(Table 2). 종속 변인이 아동의 연령이나 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 아동 연령이나 성은 통제되었다. 또한, 세 집단이 차이가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 검정으로 Bonferroni 검사를 시행하였다.

첫째, 아동의 연령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F = 6.84, p < .01$ ). Bonferroni 사후 검사 결과, 이야기 완성 검사에서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 $M = .80, SD = .14$ )은 회피형 애착 유형( $M = .60, SD = .18$ )으로 분류된 아동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연령을 통제했을 때 서로 다른 애착 유형 아동들 간에 중립적 정서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F = 7.96, p < .01$ ). Bonferroni 사후 검사 결과, 이야기 완성 검사에서 회피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 $M = .34, SD = .16$ )은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 $M = .15, SD = .11$ )에 비해 유의미하게 중립적인 정서를 많이 보였

다. 이야기 완성 검사에서 회피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 $M = .34, SD = .16$ )은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 $M = .21, SD = .17$ )보다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더욱 중립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아동의 애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F = 2.80, p = .07$ ). Bonferroni 사후 검사 결과, 이야기 완성 검사에서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을 분류된 아동들은( $M = 3.79, SD = 1.72$ ) 회피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아동들보다( $M = 2.69, SD = 1.08$ )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정서들에 대해 잘 알아차린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거의 대부분 본 연구 가설들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은 다른 애착 유형의 아동들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아동들은 다른 애착 유형의 아동들보다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서툴다는 애착 이론의 핵심 개념들을 지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다양한 정서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면에서 볼 때, 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들과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동들이 대비되었다. 즉,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아동의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s)는 애착의 안정성(attachment security)만을 고려할 때 보다 애착을 유형(attachment styles)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또한, 흥미롭게도,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애착 유형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애착 유형은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결정짓는 것 보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differences of emotional and social variables by attachment styles in doll play

	Children who were categorized as secure (N=30)	Children who were categorized as avoidant (N=16)	Children who were categorized as anxious (N=19)	F
Emotion recognition	3.64(1.13)	2.69(1.08)	3.79(1.72)	2.80+
Positive affect expression	.80( .14)	.60( .18)	.74( .18)	6.84**
Neutral affect expression	.15( .11)	.34( .16)	.21( .17)	7.96**
Negative affect expression	.05( .06)	.06( .05)	.05( .04)	.64
Positive social interactions	.40( .26)	.43( .24)	.41( .21)	.10
Neutral social interactions	.14( .16)	.06( .06)	.10( .09)	1.56
Negative social interactions	.05( .07)	.05( .07)	.05( .05)	.54

Note : N = 65, +p < .10. \*p < .05. \*\*p < .01. \*\*\*p < .001.

#### IV. 논 의

애착 이론은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조절 등 인간의 다양한 정서적 기제를 이해하는 데 탁월한 이론이다(Ainsworth et al., 1978; Bowlby, 1969, 1973, 1980, 1982; Thompson, 1998). 이는 수많은 애착과 사회정서 결과물의 연관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로 입증되고 있다(De Rosnay & Harris, 2002; Kerns, Abraham, Schlegelmilch, & Morgan, 2007; Kochanska, Aksan, & Carlson, 2005; Labile & Thompson, 1998; Lutkenhaus, Grossman, & Grossman, 1985; Sroufe, Schrock, Motti, Laworski, & LaFraniere, 1984). 특히, 애착 연구자들은 애착의 유형이 인간 정서의 패턴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insworth et al., 1978; Cassidy, 1994, 2008; Kobak et al., 1993; Shaver & Mikulincer, 2005,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애착 유형이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친구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특히, 유아기는 아동의 사회성, 인지, 정서에 대한 언어가 세분화되고, 확장

되며, 통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Bretherton, 1987).

본 연구 결과, 여러 가지 정서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아동의 능력은 이야기 완성 애착 검사에서 분류된 애착 유형(안정형, 회피형, 저항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야기 완성 검사에서 안정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회피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였다. 이는 Bowlby의 애착 이론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지니며 빈번히 표현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Bowlby, 1969, 1973, 1980). 흥미롭게도,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이 다른 애착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적게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자신의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면 이를 억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는 애착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다(Cassidy, 1994, 2008; Laible & Thompson, 1998).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동들은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정서를 다른 애착 집단의 아동들보다 적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안정적인 애착이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머물게 하고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또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애착의 역할을 입증하고 있다(Cassidy, 2008). 이는 더 나아가 긍정적인 정서를 머물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애착이 인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Diener, Sandvik, & Pavot, 2009).

게다가, 이야기 완성 검사에서 회피형 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다른 애착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를 적게 표현했으며, 중립적인 표현을 더욱 많이 하였다. 또한, 회피형 애착 집단의 아동들은 다른 애착 유형의 아동들에 비해 다양한 정서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회피형 애착 유형의 아동들과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이 동일하게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다른 정서 패턴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러 가지 감정들을 분별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아동의 정서적인 능력만을 고려할 때에는, 회피형 애착 아동들은 다른 애착 유형의 아동들과 차이를 보였다. 애착 연구자들은 저항/양가적 애착 유형의 아동들은 정서적인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끊임없이 정서적인 자극을 찾으며, 이를 과하게 표현하고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Kobak et al., 1993;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Shaver & Mikulincer, 2010).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진 아동들은 일부러 정서적인 자극을 무시하고 외면하는데, 이는 적극적인 탐색활동과 정서적 표현

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Kobak et al., 1993; 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Shaver & Mikulincer, 2010).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애착 연구자들의 주장 즉 저항/양가적 애착 집단과 회피형 애착 집단이 상당히 다른 정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로 볼 때, 애착 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정서적 기제와 패턴을 애착 안정성뿐만 아니라 애착 유형으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설명하는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 인터뷰와 자연적인 교실 관찰 두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둘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 패턴, 특히 정서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의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밝히는 것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가정들은 미국사회의 중상위계층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다른 계층,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각각의 변인을 한 가지 도구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애착 Q sorts 같은 경우, 애착 안정성의 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이 아닌 행동적인 면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한 가지 변인을 여러 가지 연구 도구를 이용해서 측정한다면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상자가 적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지만, 적은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는 애착 이론과 일치하며, 가설을 거의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분산 분석 결과, 애착 유형에 따라 또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안정 애착 아동들이 다른 애착 유형 아동들보다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가장 적게 하고 중립적인 상호작용을 가장 많이 하며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각각 .03과 .08로 아주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애착 유형에 따라 상호작용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고, 둘째, 또래 상호 작용의 질을 단순히 빈도(frequency)로 측정된 연구 방법의 문제일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 상호작용을 다른 연구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해서 애착유형과 또래 상호작용과의 관계를 더욱 정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애착 유형에 따라 아동이 다양한 정서를 인식하는 것, 표현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두 가지 다른 정서적 기제(정서를 알아차리는 것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를 함께 한 연구에서 다루었다. 이는 아동의 애착 유형이 서로 다른 정서적 기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안정적인 애착이 위협적이지 않은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머물게 하고,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또다시 한번 검증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미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결과이지만, 애착의 세가지 유형이 문화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van IJzendoorn & Sagi's review, 1999)과 애착의 안정성(security)에 관한 개념이 여러 문화(독일, 중국, 콜롬비아, 이스라엘, 미국, 및 일본)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점(Posada et al., 1995)을 감안할 때, 한국 아동들에게도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에서의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s,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Bowlby, J. (1969, 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 (1990).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MSSB)*.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assidy, J. (1994). Emotion regulation : influenc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N. Fox (Ed.),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considerations* (pp. 228-249).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 Cassidy, J. (200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clinical applications* (pp. 3-22). New York : Guilford Press.
- Cassidy, J., & Kobak, R. (1988). Avoidance and its relations to other defensive processes. In J. Belsky & T. Ne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300-323). Hillsdale, NJ : Erlbaum.
- Davidson, R. J., Jackson, N. H., & Kalin, N. H. (2000). Emotion, plasticity, context, and

- reg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6*, 890-906. doi : 10.1037//0033-2909.126.6.890
- Denham, S., Blair, K. A., Demulder, E., Levitas, J., Sawyer, K., Auerbach-Major, S., & Queenan, P. (2003). Preschool emotional competence : Pathway to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74*, 238-256. doi : 10.1111/1467-8624.00533
- Denham, S., MacKinley, M., Couchoud, E.,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eer status in young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61*, 1145-1152. doi : 10.1037/0012-1649.29.2.271
- De Rosnay, M., & Harris, P. L. (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 The roles of attachment languag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4*, 39-54. doi : 10.1080/14616730210123139
- Diener, E., Sandvik, E., & Pavot, W. (2009). Happiness is the frequency, not the intensity, of positive versus negative affect. In E. Diener (Ed.), *Assessing well-being* (Vol. 39, pp. 213-231). Springer.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Shepard, S., Losoya, S., & Murphy, B. C. (2000).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from atten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71*, 1367-1382. doi : 10.1111/1467-8624.00233
- Eisenberg, N., Hofer, C., & Vaughan, J. (2007). Effortful control and its socioemotional consequences. In J.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287-308). NewYork : The Guilford Press.
- Gilbert, D. (1998). *The American Class Structure*. New York : Wadsworth Publishing.
- Heller, W. (2004). Emotion. In M. Banich (Ed.), *Cognitive neuroscience and neuropsychology* (pp. 393-427). Boston, MA : Houghton Mifflin Company.
- Heller, W., Nitschke, J. B., & Lindsay, D. L. (1997).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arousal in self-reported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11*, 383-402. doi : 10.1037/0894-4105.7.4.476
- Kerns, K. A., Abraham, M. M., Schlegelmilch, A., & Morgan, T. A. (2007). Mother-child attachment in later middle childhood : Assessment approaches and associations with mood and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9*, 33-53. doi : 10.1080/14616730601151441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Fleming, W. S.,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 solving :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doi : 10.1111/j.1467-8624.1993.tb02906.x
- Kochanska, G., Aksan, N., & Carlson, J. J. (2005). Temperament, relationships, and young children's receptive cooperation with their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1*, 648-660. doi : 10.1037/0012-1649.41.4.648
- Laible, D., & Thompson, R. A. (1998). Attachment and emotional understanding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038-1045. doi : 10.1037/0012-1649.34.5.1038
- Lutkenhaus, P., Grossmann, K. E., & Grossmann,

- K. (1985). Infant-mother attachment at twelve months and style of interactions with a stranger at the age of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56*, 1538-1542.
- Main, M. & Hesse, E. (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 Is frightened and/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 Greenberg, D. Cicchetti, & E.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 161-184). Chicago : University.
-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66-104.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 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doi : 10.1023/A : 1024515519160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294. doi : 10.1037/0012-1649.33.2.284
- Page, T., & Bretherton, I. (2003). Gender differences in stories of violence and caring by preschool children in post-divorce families : Implication for social competenc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0*, 485-508. doi : 10.1023/B : CASW.0000003140.44020.ba
- Posada, G., Gao, Y., Posada, R., Tascon, M., Schoelmerich, A., Sagi, A., Kondo-Ikemura, K., Haaland, W., & Wynneang, B. (1995). The Secure-base phenomenon across cultures : Children's behavior, mothers' preferences, and experts' concepts. In E. Waters, B. Vaughn, G. Posada, & K. Kondo-Ikemura (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s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dels : New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 (2-3, Serial No. 244), 27-48.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5).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 *Resurrection of the psychodynamic approach to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9*, 22-45. doi : 10.1016/j.jrp.2004.09.002
- Shaver, P. R., & Mikulincer, M. (2010). An attachment theory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interpersonal behavior. In L. M. Horowitz, & S. Strack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psychology* (pp. 17-33). New Jersey : Wiley.
- Sroufe, L.A. (1996). *Emotional development :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roufe, L. A., Schork, E., Motti, E., Laworski, N., & LaFraniere, P. (1984). The role of affect in emerging social competence. In C.

-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pp. 289-319).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1998). Early sociopersonality development. In W. Damon (Series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25-104). New York : Wiley.
- Thompson, R. A. (2000). The legacy of early attachments. *Child Development, 71*, 145-152. doi : 10.1111/1467-8624.00128
- Van IJzendoorn, M. H., & Sagi, A. (2001). Cultural blindness or selective inattention? *American Psychologist, 56*, 824-825.
- 
- 2011년 12월 12일 투고, 2012년 3월 15일 수정  
2012년 3월 25일 채택